

2025년 추계학술발표대회 : 일반부문

회화와 건축에서의 구름: 불확정적 경계, 그리고 반-원근법을 위한 장치

Clouds in painting and Architecture: Devices for indeterminate boundaries and for anti-perspective

○성 지 환* 남 성 택**
Sung, Ji-Hwan Nam, Sung-Taeg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clouds, focusing on their hazy nature, along their historical lineage. During the Renaissance, clouds primarily appeared in paintings. Their indeterminate nature served as a semi-perspective device, primarily functioning as a demarcation of space or blurring boundaries. In Romantic painting, clouds formed landscapes, blurring the boundaries of the entire painting and acting as a medium for emotional expression. In modern architecture, clouds are realized in reality, obscuring architectural structures and creating unique landscapes. Clouds are an anti-perspective device, blurring boundaries.

키워드 : 구름, 불확정적 경계, 반-원근법, 르네상스 회화, 낭만주의 회화

Keywords : Clouds, Indeterminate Boundaries, Anti-Perspective, Renaissance Painting, Romantic painting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플라톤의 이데아는 르네상스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가치로 여겨졌다. 이는 곧 초월적 영역으로서 하늘을 상징하며, 동시에 신의 영역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늘에 닿고 싶은 인간의 의지는 건축과 회화를 통해 드러나 왔다.



그림 1. 판테온, 125



그림 2. 라파엘로, 변용,
1516-1520

고전 건축에서는 판테온의 오쿨러스와 같이 하늘로 집 중되는 건축적 장치를 통해 지상과 하늘을 매개하는 방 식으로 드러난다.(그림 1) 이어서 르네상스의 라파엘로의 회화에서 하늘에 떠있는 그리스도를 구름과 함께 묘사하면 서, 구름을 통해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시각적으로 매개하는 장치로 활용되었다.(그림 2) 이와 같은 장치들은 구름을 매개로 서로 융합되고 해체되면서 변화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르네상스-바로크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회화와 건축에서 구름이 어떤 장치로 활용되었는지에 대 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분석하여 양상을 파악한다. 2장 에서는 부르넬레스키의 거울 실험 사례를 통해 르네상스 시대의 원근법 체계에서 구름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고찰 한다. 이후 르네상스-바로크 회화에서 구름이 어떤 장치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3장에서는 19세기부터 현 대까지 미술과 건축에서 구름의 의미를 고찰한다. 4장에서 는 2장과 3장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구름의 사용 양상 파악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2. 르네상스-바로크 시대의 원근법과 구름

2.1 원근법적 공간에서의 구름의 개념적 의미

곰브리치는 원근법을 부르넬레스키가 발견했음을 짐작 했다.(곰브리치, 2005) 하지만 그의 원근법 체계의 위계적 공간은 한계를 드러냈다. 위베르 다미쉬는 『A THEORY OF /CLOUD/』에서 부르넬레스키의 원근법의 한계에 대해 말한다, “이 글과 이 실험은 원근법 이론이 시작부터 갖

* 한양대 대학원 건축·오브제·도시 이론 연구실 석사과정

** 한양대 건축학과 교수, 건축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 namst@hanyang.ac.kr)

이 연구는 2024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 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임.(NRF-2024S1A5A2A01020582)

고 있던 제한점을 보여준다. 원근법은 자신의 질서로 환원할 수 있는 대상, 즉 위치가 있고 윤곽이 선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들만 필요로 한다. 그러나 하늘은 위치를 갖지 않고 측정할 수도 없으며, 구름은 경계가 정해지지 않고 표면 분석도 불가능하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표현을 빌리면, 구름은 “표면 없는 몸체(bodies without surfaces)”이며, 그 경계는 서로 뒤섞이고 서로 침투한다.¹⁾

부르넬레스키는 원근법을 활용하여 인간의 시점으로 세상을 수학적 질서로 시각화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경계가 없으며 표면 분석도 불가능했다. 결국 그는 거울 실험에서 구름을 반사시키는 선택을 했다. 이에 다미쉬는 “그것은 이 실험이 제공하는 원근법 체계 전체의 이론이 가진 한계를 폭로한다.”라고 말한다.(Damisch, 2002) 부르넬레스키의 거울 실험에서 드러나듯 구름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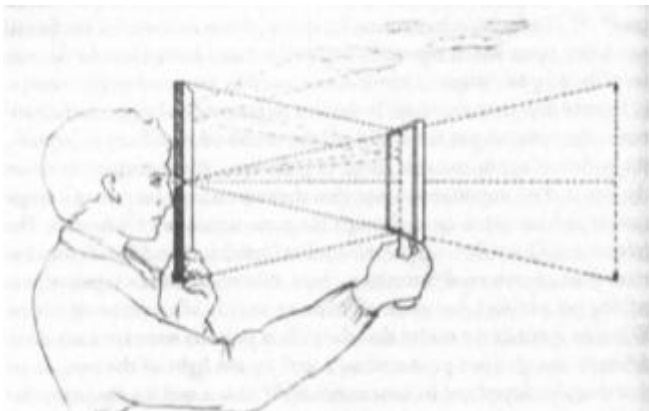


그림 3. 부르넬레스키의 거울 실험

(그림 4)는 이상도시로 알려져 있는 15세기 후반의 회화이다. 이 회화는 원근법의 전형을 보여준다. 격자가 그려진 광장 중앙에 위치한 로톤다를 중심으로 좌우의 건물이 대칭을 이루고 있다. 원근법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이 회화는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수평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부르넬레스키가 발견한 원근법 체계 속에서의 구름은 표현할 수 없는 영역임을 드러낸다.



그림 4. 작자 미상, 이상도시, 15세기 후반

2.2 르네상스-바로크 전환기의 천상의 영역을 규정하는 장치

부르넬레스키의 원근법 체계속에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었던 구름은 르네상스 회화에서 신적인 존재의 영역

1) Damisch, H. (2002). A theory of /cloud/.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24.

으로 구체된다. 이는 라파엘로의 「성체 논쟁」에서 드러나는데, 이 회화에서의 구름은 지상의 영역과 천상의 영역을 구분하는 장치로서 소비된다. 라파엘로는 이 회화에서 구름을 균형 잡힌 슬라브의 형태로 표현하였다. 구름 위에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어 성인들이 둘러앉아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성체 논쟁」과 비교하며 질서와 균형이 무너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불규칙한 형태를 이루는 작고 좁은 구름 위에 인물들이 서로 뒤엉킨 채로 올라타 있는 모습은 혼돈을 유발하여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이와 더불어 미켈란젤로는 원근법 체계를 따르지 않고 구름 위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요 인물들을 크게 표현하여 강조한다.



(a) 라파엘로, 성체 논쟁, 1509-1510



(b) 미켈란젤로, 최후의 심판, 1536-1541

그림 5. 천상과 지상의 영역을 구분하는 구름

라파엘로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구름으로 새로운 시도를 이어간다.(그림6) 「폴리뇨의 성모」에서는 구름이 천상과 지상의 경계를 흐림과 동시에 이어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제키엘의 환상」에서는 하늘에서 강림하는 하느님을 표현한다. 회화 속 이제키엘과 비교했을 때,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하느님은 거인과 같은 크기로 등장한다. 이 회화에서는 구름으로 천상과 지상의 경계를 흐릴 뿐만 아니라 스케일을 파괴하여 극적인 장면을 연출한다.



(a) 라파엘로, 폴리뇨의 성모, 1511-1512



(b) 라파엘로, 이제키엘의 환상, 1518

그림 6. 천상과 지상의 경계를 흐리는 구름

2.2 건축적 경계를 흐리는 장치

코레지오의 성모 승천에서는 하늘을 향해 떠오르는 성

모를 구름이 둘러싸고 있다.(그림 7) 이 회화는 시공간을 넘어 지상에서 천상으로 승천하는 장면을 묘사하는데, 이 장면에서의 구름은 지상과 천상을 연결하는 매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다미쉬는 “이 돔들 속에서는 구름들, 특히 거대한 구름 덩어리들이 화면 전체를 침투하거나, 심지어 그 경계를 넘어서 인접한 건축 요소들까지 흘러들어 간다.” 라고 말한다.¹⁾ 이 회화에서의 구름은 회화의 영역을 벗어나 건축의 영역으로 침범하게 되었으며, 회화와 건축의 경계를 넘나드는 장치로서 사용되었다.



그림 7. Correggio, The Assumption of the Virgin, 1526-1530

이와 같은 특징들은 앞서 언급한 줄리오 로마노의 거인의 방에서 더욱 과감하게 드러난다. 거인의 방의 프레스코화는 구름이 하늘의 경계를 구분짓는 동시에 건축적 경계를 침범하여 천장, 벽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렵다. 이에 폴라 카라벨에 의하면 거인의 방의 프레스코화는 알베르티식의 안정성을 무효화하고, 회화 속의 가짜 돔, 거인들,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듯한 벽화를 통해 혼란을 유발한다. 또한 관람자의 영역을 침범하여 이 방 속으로 편입시키고, 주체와 객체 사이를 통합한다고 말한다.(Carabell, 1997)



그림 8. Giulio Romano, The Fall of the Giants, 1532-1535

카라벨이 말하는 중심의 분산, 혼란스러움, 그리고 주체와 객체 사이의 통합은 모두 구름을 매개로 유발된다. 줄리오 로마노는 무너져 내리는 건축요소들을 구름과 함께 방 전체에 표현함으로써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였으며, 주체와 객체를 통합했다.(Carabell, 1997)

1) Damisch, H. (2002). A theory of /cloud/.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5.

이어서 등장하는 바로크 건축의 사례의 과도한 장식은 고전적 질서를 흐린다.(그림 9) 브로미니는 파사드에 드러나는 엔타블러처를 곡선으로 처리함으로써 파사드 전체가 구름과 같이 흘러가는 듯한 효과를 구현했다. 물론 브로미니가 구름을 모티프로 형상화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앞선 사례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비슷한 시기에 구름이 천상과 지상을 매개하는 장치로 작동했다면, 브로미니가 엔타블러처에 사용한 곡선은 구름이 수행했던 기능과 유사한 상징성을 지닌다.



그림 9. Francesco Borromini, San Carlo alle Quattro Fontane, 1646

3. 낭만주의 회화와 현대 건축에서 구름을 통한 감각적 경험

3.1 분위기의 장치

전함 테메레르는 나폴레옹 전쟁에서 활약한 영국 해군의 전함이다. 영국 해군의 승리의 상징인 이 전함은 더 수명을 다해 런던으로 끌려가 해체되게 된다. 터너는 이 장면을 회화로 담아냈다.(그림 10) 이 회화의 하늘은 석양으로 물든 구름으로 가득하다. 터너는 구름을 석양과 함께 명확한 선이 없는 흐릿한 경계의 풍경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시대의 전환을 감성적으로 풀어냈다.



그림 10. JMW Turner, 전함 테메레르, 1838

게오르그 짐멜은 「The philosophy of landscape」에서 예술가의 풍경에 대해 설명한다.

“예술가는 주어진 세계의 혼란스럽고 무한한 흐름 속에서 일정한 일부분을 구획해내며, 그것을 하나의 통일된 현상으로 구상하고 형성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풍경은 이제 자기 안에서 의미를 갖게 되며, 주변 세계와 연결된 모든 실타래들을 끊고, 그것들을 자기 중심 안에서 다시 엮어낸다.

우리가 초원이나 집, 시냇물, 지나가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하나의 ‘풍경’으로 인식하는 순간, 비록 그것이 덜 정교하고, 덜 본질적이며, 경계가 불분명한 파편적인 방식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예술가가 따르는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절차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Simmel, 2007)

이 회화는 하늘을 뒤덮은 구름의 흐릿한 경계로 인해 풍경으로 인식된다. 짐멜에 의하면 개인의 내면에서 새롭게 재구성되는 것이다. 즉 인간 개인이 만들어내는 세계이다. 따라서 구름의 불확정적 경계는 풍경으로 인식되어 감정을 투영한다.

3.2 구름을 통한 감각적 경험

딜러 스코피디오 + 렌프로는 구름을 사용하여 디지털 시각 매체들로 가득한 박람회에서 시각적 자극을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했다. “2002년 스위스 국립박람회를 위해 제작된 블러는 의도적으로 초점을 흐리게 고안되었다. 이는 박람회가 점점 더 시각 매체들로 과포화되고, 극적인 최첨단 몰입 기술과 디지털 시뮬레이션으로 가득한 전시 공간으로 변모한 것에 대한 하나의 응답이었다.” (Diller Scofidio + Renfro, 2024) 현대인들은 ‘현실’이 아닌 현실과 유사한 ‘디지털 시각 매체’에 열광한다. 기술의 발전을 통한 최첨단 몰입 기술을 구현해냈지만, 현대인들의 시각과 청각을 피로하게 만들었다. 블러 빌딩은 구름을 재료로 사용하여 고화질이 아닌 저화질, 즉 흐린 건축을 구현했다.



그림 5. 딜러 스코피디오 + 렌프로, 블러 빌딩, 2002.

이는 시각적 매체에 치중되어 있는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이다. 그들은 흐린 공간 안에서 시각을 제외한 다른 감각을 통해 ‘살아있음’을 느끼도록 했다. 이는 형태, 경계, 깊이, 크기, 색, 질감, 표면 등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특징들을 모두 제외한 나머지 감각으로 공간을 느끼는 것이다.(Diller Scofidio + Renfro, 2024) 그들은 구름을 사용하여 감각을 덜어냄으로써 현대인들에게 자유와 새로운 분위기를 제공했다.

4. 시대순으로 드러나는 구름의 불확정적 경계, 그리고 반-원근법을 위한 장치

구름은 반-원근법적이며, 경계를 흐리는 장치이다. 구름은 부르넬레스키가 발견한 원근법적 공간으로 통제할 수 없는 요소였다. 이와 같은 반-원근법적인 요소인 구름은 르네상스 시대에 신적인 존재들의 공간으로 묘사되었으며, 바로크 전환기에 건축적 영역으로 침범하여 경계를 흐렸다. 이러한 흐리는 성질은 점점 확장되어 낭만주의 회화에서 풍경을 형성하며 숭고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현대 건축에 들어서는 구름 그 자체가 되어 이름 그대로 흐린 건물로써 등장했다. 이는 분위기의 건축이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주로 회화에서 구름이 등장했다. 구름의 불확정적인 성질은 반 원근법적 장치로서, 주로 공간을 구획하거나, 경계를 흐리는 장치로 기능했다. 낭만주의 회화에서는 풍경을 이루며 회화 전체의 경계를 흐렸고, 감정의 매개로서 작용한다. 현대 건축에서는 구름이 현실에서 구현되어 건축 구조체를 흐리며 색다른 풍경을 자아낸다.

이 연구는 서양의 건축사와 미술사 중심으로 진행되었기에 동양의 구름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갖는다. 또한 서양의 건축 미술사에서 구름의 발전 양상을 추적하여 구름의 흐리는 특징에 대해 다뤘다는 점에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역사적 계보를 추적하는 연구 방법이기때문에 각 사례마다 분석의 깊이가 부족했다. 미술·건축사에서 구름의 특징을 이해하는 방편으로 삼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Damisch, H. (2002). A theory of /cloud/.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 콰브리치, E. H. (2005). 『서양미술사』(백승길, 최중훈 역). 서울: 예경. (원저 출간 연도 1950)
3. Carabell, P. (1997). Breaking the frame: Transgression and transformation in Giulio Romano's Sala dei Giganti. *Artibus et Historiae*, 18(36), 87-100.
4. Simmel, G. (2007). The philosophy of landscape. In D. Frisby & M. Featherstone (Eds.), *Simmel on culture: Selected writings* (pp. 109-119). London: Sage.
5. Diller Scofidio + Renfro. (2024). *Architecture, not architecture*. Phaidon Press.